

거칠부가 진흥왕을 보좌하며 설치한 신라 단양적성비.

# 병권 장악 신라 최고실세 후계자
# 상대등 등극 '4년 천하'로 막내려

## 신화 속의 역사 〈43〉 거칠부의 정치

**거칠부는 내물왕의 5대손으로 이사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장 먼저 이사부의 명을 받들어 승려가 돼 고구려로 잠입해 물정을 살피다가 선승 혜량 스님에게 발각돼 훗날을 기약하고 신라로 돌아왔다.**

**이어 거칠부는 이사부의 건의로 진흥왕에게 발탁되어 학자들과 함께 국사를 편찬하는 대기록을 남겼다. 이어 이사부와 함께 진흥왕의 최측근이 돼 정복전쟁에 나서 많은 공을 기록했다.**

**이사부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뒤를 이어 거칠부가 급격하게 신라 최고의 실력자로 떠올랐다. 끝내 미실과 손을 잡고 진지왕을 옹립한 거칠부는 스스로 상대등이 되어 신라 최고의 실력자로 권좌를 누렸다. 거칠부의 세상은 4년을 넘기지 못하고 몰락하면서 진지왕이 폐위되고, 미실이 노리부와 함께 진평왕을 옹립해 최고의 실세로 부상했다.**

◆신화전설: 거칠부의 정치

거칠부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역사서 여기저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칠부는 내물왕의 5대손으로 신라시대 문과 무 모든 분야에 뛰어난 대신으로 일명 '황종(荒宗)' 또는 '거칠부지(居七夫智)' 라고도 불렀다. 할아버지는 잉숙(仍宿), 아버지는 이찬 물력(勿力)이다.

거칠부는 눌지 마립간의 직계가 소지 마립간으로 끝난 상황에서 왕위를 계승 중인 복호계를 제외한 내물계의 다른 직계인 미사흔계의 자손이다. 거칠부는 어릴 때부터 승려로 살았다. 그는 일찍부터 나라에 큰 뜻을 두고 승려가 되어 사방을 유람했다. 그때 고구려에 몰래 들어가 혜량(惠亮)의 강의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이때 혜량이 거칠부가 신라의 첩자임을 알아보고 몰래 돌아가라고 알려주면서 후일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도와주어야 한다고 약조를 하기도 했다.

거칠부는 진흥왕 21년 551년에 장군이 돼 고구려 땅으로 진격했을 때 전자의 약속처럼 혜량스님을 맞아들여 진흥왕에게 추천해 승통이 되게 했다. 혜량은 황룡사에서 백좌강회를 열어 국태안민을 기원하는 대집회를 열었다. 이는 거칠부의 국가 안위를 우선하는 불교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거칠부는 신라와 고구려 이곳저곳을 유람하면서 각 지방의 명사들과 교류해 학식, 경험, 인맥을 쌓은 인물이므로 국사 편찬 등의 장군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학자로서도 중요한 일을 담당했다.

거칠부가 545년에 편찬한 국사는 거의 천 년이 지난 고려시대까지 존재했으나 현재는 실전되고 없다. 다만 고려시대에 기존 사서를 집대성해 편찬한 삼국사기에서 많은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칠부는 특히 군사, 정치적인 분야에서 활동이 컸다. 551년에 대각간 구진, 각간 비태, 잡찬 탐지와 비서, 파진찬 노부와 서력부, 대아찬 비차부, 아찬 미진부 등 8명의 장군과 더불어 백제와 연합하여 죽령 이북 고현 이내의 10개 군을 빼앗아 신라의 영토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거칠부의 이 전쟁은 이사부의 전략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시위인 동시에 진흥왕 12년 이후의 친정체제를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전쟁으로 진흥왕을 정복군주로 불리게 했다.

진흥왕순수비 가운데 마운령비와 창녕비에 거칠부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진흥왕 때 이사부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장군으로 정치적 비중 또한 매우 높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거칠부는 576년 진지왕 즉위에 공헌해 상대등으로 즉위하는 등 신라 중고기의 중요한 대신으로서 활약했다. 이것은 그가 진지왕의 즉위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거칠부는 진지왕의 재위 기간에 78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전한다.







인공지능 AI가 그린 1 고구려 혜량 선사가 잠입한 거칠부를 훈계하는 장면. 2 거칠부가 진흥왕의 명을 받아 국사를 편찬하는 장면. 3 거칠부 장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장면.

**문무능통 명성 신라 대신**
**일명 '황종'·'거칠부지' 불려**
**진흥왕순수비 비문 눈길**
**왕 다음에 이름 올리기도**

**이사부 장군 오른팔 역할**
**어릴 땐 승려로 전국 유람**
**'백좌강회' 혜량스님과 인연**
**국사 편찬·영토확장 업적**

**미실과 협력, 진지왕 즉위**
**거칠부 사후 폐위되기도**

진지왕은 즉위한 지 4년 만에 폐위되었는데 학자들은 거칠부의 사망과 관련시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거칠부와 손잡고 진지왕의 즉위에 적극 가담했던 미실 세력의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흔적: 신라 진흥왕순수비

진흥왕 순수비는 진흥왕이 이사부와 거칠부의 지원에 힘입어 삼국통일의 기반을 이룩한 영토 확장에 따른 승리의 깃발과 같은 기능을 한 비석이라고 해석해도 괜찮다.

진흥왕 22년인 561년에 건립한 창녕비, 7년 뒤인 568년 전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비, 마운령비, 황초령비가 대표적인 순수비로 손꼽히고 있다. 나중에 발견된 단양 적성비도 순수비와 같은 성격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창녕비는 반달 형태로 특별한 모형을 갖춘 비석이고 나머지는 장방형으로 높이 150㎝ 정도의 비석 형태를 하고 있다. 창녕비에는 진흥왕 다음으로 이사부의 이름이 나타나지만 북한산비와 마운령비에는 거칠부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 이무렵에는 이미 이사부와 대등하거나 거칠부가 실질적인 세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특히 북한산비와 마운령비, 황초령비의 비문은 왕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한 거칠부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또 이 세기의 비석은 서라벌이나 특정한 곳에서 제작해 현지로 실어가 설치한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회자되고 있다.

◆스토리텔링: 거칠부의 활약

거칠부는 신라 지증왕 시대부터 법흥왕을 거쳐 진흥왕 시대까지 병권을 거머쥐고 병부령에 이어 상대등의 위치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행세했던 이사부의 후계자로 빠르게 성장해 신라의 대신으로 자리를 매김했다.

거칠부는 권력의 중심에서 왕의 즉위와 폐위에 직접 관여하며 50년 이상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 이사부의 그늘에서 승려이자 학자, 장군으로 활약하며 성장을 거듭해 말년에 미실을 만나 진지왕을 옹립하며 상대등의 위치까지 올랐다.

거칠부는 주로 정치에서 활약한 재상급 인사로 소개되고 있지만 소시적에는 승려 경력도 있고, 역사서 국사를 편찬한 문인이었으며 장군으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해 영토 확장에도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고구려를 정탐하기 위해 고구려에서 눌러살았었다는 이력을 보면 첩자로서의 경력도 있었던 것으로 당시 신라의 만능인물이었던 재주꾼으로 평가된다.

주보돈 교수 등은 진흥왕 재위 후반부에 창설한 화랑 제도를 거칠부가 주도해 추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칠부 본인이 어릴 적 승려로 출가해 지식을 쌓거나 유명한 승려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 고구려 땅까지 포함해 천하를 유람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경험을 쌓은 그의 흔적이 모두 화랑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랑은 이사부와 위화랑에 의해 전격적으로 진행된 제도이며 거칠부는 화랑도 창설의 주도 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라 성장기 영토 확장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거칠부는 병권을 거머쥐고 미실과 연대해 진흥왕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진지왕을 등극시켰다. 이어 거칠부는 스스로 상대등에 올라 신라의 모든 권한을 좌지우지하는 실력자가 되었다.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거칠부의 명예는 오래가지 못했다. 거칠부는 미실이 왕비가 되면 자신의 권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의도적으로 미실을 멀리하면서 왕비 즉위를 방해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미실은 거칠부를 제거하기 위해 노리부와 손을 잡았다. 미실은 거칠부를 제거하고, 힘이 빠진 진지왕을 4년만에 정치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폐위시키고는 진흥왕의 손자 백정을 진평왕으로 추대하면서 최고의 실력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장군이자 학자로 국사를 편찬하는 등 신라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칠부는 진지왕을 옹립하고, 상대등으로 최고의 권력자로 떠올랐지만 그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노령으로 인한 자연사인지 미실 등의 힘에 밀려 죽음을 맞아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타살에 무게가 실린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이 글은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스토리텔링 한 것이므로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